

삼성디스플레이, 초해상도 트렌드 선도

# 세계 최초 'UHD 비디오월' 출시

화소수 830만개... FHD 제품 4배 3.7mm '울트라 내로우 베젤' 적용 거대한 멀티비전 형태 제작 가능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UHD(초고화질·화소 수 3840×2160) 해상도의 비디오월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디오월은 화소 수가 FHD(풀HD) 제품의 4배인 830만개에 달하며 베젤(테두리)의 너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배선도 늘어나 베젤을 얇게 만드는 게 어렵지만 3.7mm의 '울트라 내로우 베젤'을 적용해 UHD 해상도를 구현하면서도 패널과 패널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UHD 해상도의 단품 사이니지 제품은 상용화됐지만 멀티비전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비디오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4K UHD 해상도의 '65인치 비디오월'. /삼성디스플레이

제품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2단·2열(4개)로 연결해 멀티비전으로 제작할 경우 46인치 패널을 3단·3열(9개)로 연결한 크기와 비슷한 가로 288.6cm, 세로 162.7cm의 거대한 비디오월을 구현할 수 있다.

양오승 삼성디스플레이 LCD 마케팅 팀장은 "TV 시장에서 UHD 해상도가

표준 사양으로 자리 잡고 8K 해상도가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비디오월 시장에서도 더 뛰어난 해상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65형 UHD 신제품 출시를 통해 비디오월 시장의 고해상도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LG니꼬동제련, 165만t 동광석 확보

호주 광산기업과 장기구매계약 5년간 매년 33만t씩 안정적 공급

LS니꼬동제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호주 광산기업 BHP와 동광석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양사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LS니꼬동제련 최고경영자(CEO) 도석구 사장과 BHP 다니엘 말척 아메리카 총괄사업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5년, 총거래량은 165만t으로 LS니꼬동제련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니꼬동제련은 내년 2023년까지 BHP가 운영하는 칠레 에스콘디다 광산의 동정광을 매년 33만t씩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LS니꼬동제련은 BHP가 공급하는 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료로 전기동 50만t을 비롯해 금·은·백금·팔라듐 등 귀금속과 희소금속, 황산·고순도 황산(PSA) 등 약 3조원대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LS니꼬동제련은 "지난 9월 페루의 광산기업 민수르와 10년간 56만t 규모의 장기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연이어 성사됐다"며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계약에서 연간 25만t이었던 BHP 물량은 이번 계약에서 33만t까지 늘었다. 통상 동정광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이지만 5년의 장기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유진기자

## 일반 셋톱박스도 AI 활용 'Btv 누구 서비스'

SK브로드밴드, SKT와 협업 연내 전체 UHD 셋톱박스 적용

SK브로드밴드는 'B tv'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일반 셋톱박스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B tv 누구(NUGU)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B tv NUGU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AI 일체형 'B tv x NUGU'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누구 서비스를 일반 셋톱박스에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B tv x NUGU' 셋톱박스와 마찬가지로 주문형비디오(VOD) 조건검색과 함께 ▲뮤직메이트, 멜론 등 음악 서비스 ▲팟캐스트, ASMR, 오디오북 등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홈 제어, 날씨, 미세먼지, 운세, 교통정보, 백과사전, 한영



모델이 'B tv NUGU 서비스' 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사전, 프로야구 정보 등 생활정보 서비스 ▲폰찾기, 11번가 추천상품 주문, 홈쇼핑 주문 등 생활편의 서비스 등 AI 서비스를 B tv 일반 셋톱박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B tv NUGU 서비스'는 리모컨의 음성검색 버튼을 누른 후 목소리로 명령을

하면 TV 화면을 통해 즐길 수 있다. B tv와 누구 모바일 앱을 연결할 경우 홈쇼핑 주문과 같은 음성인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콘텐츠별 시즌 간 이동, VOD 플레이 제어 등의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VOD 시청 중에 "30초 뒤로 이동해줘", "1시간 30분부터 재생해줘", "4배속으로 재생해줘" 등 VOD 플레이를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NUGU 서비스'를 UHD·HDR 셋톱박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UHD 셋톱박스에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의 UHD·HDR 셋톱박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셋톱박스나 리모컨 교체 없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B tv NUGU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전자, 국내 최대용량 16kg 건조기 예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적용 트롬 건조기 다음달 출시

LG전자가 최대 용량 16kg의 건조기를 내놓는다. LG전자는 다음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홈페이지와 전국 LG베스트샵에서 사전 예약판매에도 돌입했다.

이번 제품은 프리미엄 건조기 핵심 기술인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이용하면서 국내 최대 용량인 16kg을 실현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용량 컴프레서는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를 2개 품으면서 건조 능력을 높였다. 히트펌프 건조기는 냉매가 순환하며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원리, 냉매 양을 이전 모델보다 10% 이상 늘리면서다. 옷감에 바람을 불어주는 팬 전용 인버터 모터도 별도 탑재했다. 모터 2개가 빨라 종류와 양에 따라 건조통 회전속도와 건조통 내부 공기 흐름을 각각 제어할 수 있게 됐다.

모터와 컴프레서 속도도 자유자재로



LG전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하면서 용량을 16kg으로 늘린 트롬 건조기를 예약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조절할 수 있다. 인버터 기술력을 통해서다.

트롬 건조기만의 편의기능은 그대로 이어갔다. 대용량 물통을 이용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고, 미니워시를 아래에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콘텐츠 자동세척 시스템도 트롬만의 기능이다.

출하가격은 209만~219만원이다. 예약 판매자에게는 '퓨리케어 공기정정기'를 증정하며, 21kg 트롬 세탁기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상당 추가 혜택을 준다. 4kg 미니워시를 함께 구매하면 30만원 상당 로봇 청소기를 추가 제공한다.

/김재용기자 juk@

## LG이노텍, 국내 최초 자율車용 통신모듈 개발

LTE 기반 C-V2X 모듈 신용카드 3분의 1 사이즈

LG이노텍이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기술 기반 C-V2X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에 장착 가능한 모듈 단계까지 기술 완성도를 높인 것은 국내 기업 중 LG이노텍이 최초다.

C-V2X란 '셀룰러 차량·사물통신'의 약자로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차량과 차량·보행자·인프라 간에 교통 및 도로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C-V2X의 통신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 C-V2X 모듈이다.

C-V2X는 카메라, 레이더 등 차량 센서에 의존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로 주



C-V2X 모듈. /LG이노텍

목받고 있다. 다른 차량 및 도로 인프라 등과의 통신으로 사각지대 돌발 상황까지 인지할 수 있어서다.

이번 LG이노텍의 C-V2X 모듈 개발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차세대 통신 플랫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모듈을 사용하면 V2X 관련 수백 개의 부품을 구입하거나 복잡한 통신회로와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LG이노텍은 C-V2X 모듈의 두

뇌 역할을 하는 통신 칩셋으로 현재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퀄컴 9150 C-V2X'를 사용했다. C-V2X가 전례 없는 신기술이라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기 어렵지만 LG이노텍은 독자적인 회로 설계기술과 차량부품사업 노하우로 모듈화에 성공했다.

또한 LG이노텍은 국제 기술 표준을 준수해 지역이나 차량에 관계없이 여러 업체들이 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계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가 지난해 3월 규정한 LTE C-V2X 직접통신 표준을 따랐다.

아울러 LG이노텍 C-V2X 모듈은 사이즈가 신용카드의 3분의 1 정도로 작아 차량 내부 어디든 장착하기 좋다. 통신 칩셋, 메모리 등 350여 개의 부품을 탑재하고 고도 두께가 3.5밀리미터(mm)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한진, '블프'기념 배송비 최대 100% 할인

자사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 이벤트 우리비자카드 결제시 배송비 혜택



한진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쇼핑 고객들을 위해 자사의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인 이하넥스를 대폭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진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월 평균 물동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한진은 제휴 카드사와 함께 '우리오리한 혜택, 배송비 50~100% OFF' 이벤트를 연다. 오는 12월31일까지 해외쇼핑몰에서 우리비자카드 100달러 이상 결제시(단일 승인건 기준) 배송비의 50%, 150달러 이상 결제시 70%, 200달러 이상 결제시 100% 할인 혜택을 준다.

관련 이벤트는 미국의 오레곤, 캘리포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미주물류센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배송대

행과 'THE 빠른 서비스' 모두 적용된다. THE 빠른 서비스는 통관에 필요한 필수 항목 작성만으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특송이 진행돼 보다 빠르고싼 운송료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포인트도 적립해준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진 이하넥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배송대행서비스를 손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하넥스 모바일 앱(APP) 서비스도 강화한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저장 기능과 작성중인 신청서를 언제든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임시저장 기능을 새로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